

추모의 글

故 현원일 지부장님의 명복을 빌며

창원산업보건센터 지부장 / 노선호

현원일 지부장님, 오늘은 지부장님과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센터 전 직원들이 고개 숙여 하직인사 올립니다.

지부장님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너무나도 애통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하시어 것처럼 챙기시던 우리 곁을 뿌리치고 떠나셨습니까.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환한 미소와 열정적인 봉사로 살아오신 지부장님!

지난 연말 우리 센터 창립 40주년 행사에 오셔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수고해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오늘은 어찌도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난 번 심운택 회장님께서 문병 차 내려오셨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지부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오늘도 심 회장님께서 바로 옆에서 슬픔을 억누르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정 속의 지부장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환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저희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암세포가 몸 속을 침범했을 때도 지부장님께서서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의지만 투병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지부장님께서서는 허허 웃시면서 '누가 이기나 보면 알 거 아냐' 하는 식으로 암세포와 정면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가까이 암 세포를 눌러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게 지부장님의 정신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부장님께서서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 함경도 함흥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방된 조국 함흥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하셨으나 6.25라는 동족상쟁의 전란으로 또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란 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부장님께서서는 서울의과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하셨고, 이후 군의관 생활을 거쳐 이곳 마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향외과의원'을 개업하면서 20여 년 동안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봉사를 하셨으며 특히 1974년도에는 대한결핵협회 경남지부장을, 또 1975년도에는 마산시의사회 회장직을 맡아 지역사회 결핵퇴치사업은 물론 의료인들의 화합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지부장님께서서는 70년대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마산산업보건센터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당시 보건사회부가 주관하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참가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사업장 보건관리자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사업장과 창원센터에서 오직 근로자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는 마산 시내에서 개업하셨던 병원까지 문을 닫으시고 오직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남지부장으로 이곳 창원센터에서 15년 동안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며 봉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1986년 5월에는 한일산업보건학술대회를 제1차 서울 대회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마산 크리스탈호텔에서 개최하여 창원센터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또한 이곳이 수출자유무역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집단보건관리에 헌신하여 오늘날의 보건관리대행제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은 분도 바로 지부장님이셨습니다. 이 어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부장님께서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환경을 잘 살피라. 모든 해답은 그 속에 들어 있다”

지부장님의 말씀은 늘 교훈처럼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아직은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산업보건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늘따라 지난 시간들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요. 생각해 보면 저와 지부장님과의 인연은 20여 년 전 제가 마산센터에 입사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 보다는 마산시내의 개업의사로서 지부장님을 뵈는 햇수가 훨씬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보다 훨씬 연배시라 감히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통술집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자상하게 술 한 잔 권하시고는 안부를 묻거나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산센터에 입사하자 지부장님은 저의 학문과 인생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임상 의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산업 의학이란 학문은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소음이나 유기용제는 말할 것도 없고 특수검진이란 단어 자체도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만 둘까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외한인 저를 지부장님께서서는 처음부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고 매달 토요일마다

떠나는 등산을 통해 저의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저는 산업의학에
차츰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까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이 벌써 20여 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제 나이 역시 제가 입사할
당시의 지부장님 연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에 보답도 못하고 지부장님을
떠나 보내게 되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부장님께서서는 둘째
아들인 현정현 원장을 훌륭한 의사로 키워 저희 센터에 보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지부장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젠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지부장님!

생자필별(生者必別)이란 자연의 순리를 어는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만 생각할수록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우리들이 지부장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거룩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원일 지부장님, 우리 센터 직원 모두 두 손 모아
마지막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소서. 🙏

2014. 10. 21

